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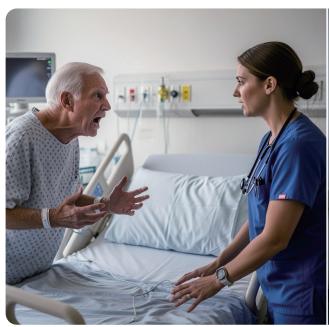
## 스마트하고 안전한 병원 구축: 의료진 피로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



## 의료진들은 매일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빈번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근무 환경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미국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 부문에는 2019년 이후 정규직 근로자 1만 명당 평균 14.2건의 직장 내 폭력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전체 민간 산업 평균인 1만 명당 2.9건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폭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료 관련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이는 의료 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전 세계 의료 인력 부족이 2030년까지 30% 이상 증가해 최소 1,0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대륙에서 심화되는 글로벌 과제로 지적된다.

맥킨지 헬스 연구소(McKinsey Health Institute)의 글로벌 리더 <u>푸자 쿠마르(Pooja Kumar)</u> 역시 선진국에서도 두 자릿수의 인력 부족이 나타나며, 일부 국가는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많은 병원과 의료기관들이 직장 내 폭력 완화와 의료진 안전 강화를 위해 AI 기반 영상보안 솔루션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 실시간 모니터링의 다양한 특장점

통합된 AI 기반 영상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면, 병원 내 보안 및 운영 책임자는 병원 내부와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의료 현장뿐 아니라 원격 중앙 관제실에서도 병원 외부, 주차장, 출입구, 환자 접수 구역, 병동, 물품 보관실 등 주요 구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시설 가시성이 크게 향상된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사전 예방적 영상 모니터링은 잠재적인 위협을 즉시 탐지하고, 보안 담당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단 출입 시도, 배회, 공격적인 행동 등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해, 상황 이 악화되기 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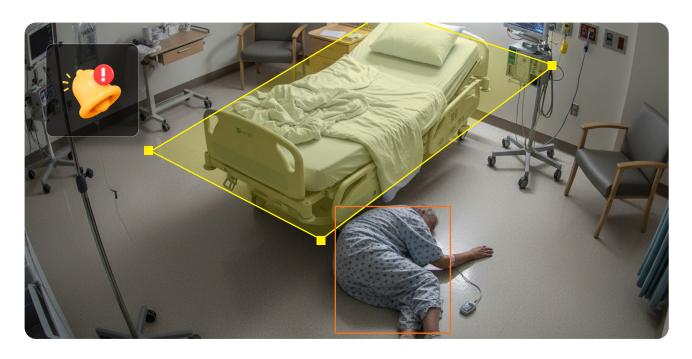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많은 카메라 영상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관심 인물을 몇 분 내에 정확히 식별한다.

또한, AI 데이터 분석 기능은 나무, 느슨한 케이블, 작은 동물, 잔해 등으로 인한 오알람을 실제 위협과 구별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안 운영을 지원한다.

나아가 AI 기반 영상보안 솔루션은 단순한 보안을 넘어 다양한 운영상의 이점도 함께 제공한다.



위험 및 법적 이슈 감소: 병원과 의료 센터의 위험 요소, 잠재적 책임, 소송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명확한 실시간 시각 데이터는 주요 규제 준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 정당한 조치를 입증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진 피로 완화:** 간호사와 의사가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환자 치료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방문자 출입 관리 개선:** 병원은 의료진, 환자, 보호자, 공급업체 등 밤낮으로 많은 인원이 드나드는 고유동 시설이다. 스마트 영상보안 시스템은 이러한 환경에서 방문자 관리 절차를 지원하고, 인력 순찰 의존도를 줄이며, 조기에 잠재적 위협을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안 인력은 보다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병원은 적절한 AI 기반 영상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의료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